’2019년 6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 MBC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19.6.25	대전MBC 대회의실	6	7	

- ㅇ 시청자위원 불참자 명단 : 김종남 위원, 박상민 위원, 이규홍 위원, 임정규 위원
- ㅇ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신원식 사장, 이재근 경영기술국장, 최영규 제작부장, 신영환 보도국장, 서주석 미디어전략국장, 정수진 방송기술센터장, 임세혁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4	8	-	-	12	-	12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2	-	-	12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13 건	16 건	
편성	주말 편성시간 변화 : 편성정보 제공 요청	주말편성변화의 의미와 대응 고지 **<19.6월 조치>**	'19.5월
편성	유튜브 라이브 : 화제성 뉴스에 대한 적극적 접근	대전MBC 유튜브 운영, 모든 뉴스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 **<19.6월 조치>**	'19.5월
교양	젠더 이슈에 대한 적극적 대처	여성 택시기사 격벽 보호 (6/26) **<19.6월 조치>**	'19.5월
교양	역발상의 방송소재	향후 프로그램 개편시 반영 예정 **<19.6월 조치>**	'19.5월
교양	이제는 시민이 주인이다 : 자막과 오디오 효과의 적절성	자막과 오디오 부분의 세심한 편집 - 내 동네 부엌에 놀러오세요 (6/18), 안녕축제 (6/11) **<19.6월 조치>**	'19.5월
교양	크리에이터 성장기 독전 : 청소년 및 다양한 인물 선택	콜라.비, 부시맨을 통한 다양성 강화 (6/10,17,24) **<19.6월 조치>**	'19.5월
교양	다큐 에세이 그 사람 : 부정확한 발음시 자막 처리에 대한 고민	부정확한 부분에서 자막으로 지원. 사랑이 넘치는 6남매 (6/26) **<19.6월 조치>**	'19.5월
보도	노정렬의 시시각각 : 보다 적극적인 이슈 채택	시의에 맞는 이슈 선정, 집배원 과로사 논란 (6/10) **<19.6월 조치>**	'19.5월

보도	기사 : 추락하는 교권 시기에 맞는 소재 선정	스승의 날 관련기사, 기 송출. 다양한 이슈를 위한 소재 선택 **<19.6월 조치>**	'19.5월
보도	기사 : 자전거 보험 심층적인 접근 필요	심층취재 뉴스 강화 ,**<19.6월 조치>**	'19.5월
보도	기사 : 미세먼지 유사 내용에 대한 반복 주의	미세먼지 관련 뉴스, 내용 재점검 **<19.6월 조치>**	'19.5월
보도	기사 : 황교안 재결집 주요인물의 인터뷰 있어야	당사자의 인터뷰 송출 확인 **<19.6월 조치>**	'19.5월
보도	뉴스 아이템 제안 다양성 반영 해야	대전 여성 부시장, 여성 시의장 나오나 (6/10) **<19.6월 조치>**	'19.5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	-	-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성 명	전 · 현직	변동사유	비고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정보 공개 사항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대전 MBC 홈페이지	시청자위원회 월간 운영실적 회의록 전문공개	인터넷

나. 시청자위원 명단

구분	성명	전 · 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김선재	배재대학교 총장	한국컨텐츠학회	문화단체	19.05.01~ 20.04.30
부위원장	권부남	대전 청소년 위캔 센터장	대전YWCA	청소년단체	19.05.01~ 20.04.30
위원	김종남	대전YMCA 사무총장	대전YMCA	소비자단체	19.05.01~ 20.04.30
위원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학부모단체	19.05.01~ 20.04.30
위원	양선희	대전대학교 글로벌융합창의학부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관련단체	19.05.01~ 20.04.30
위원	김병구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19.05.01~ 20.04.30
위원	박상민	정보철강(주) 부사장	미래경영인모임	경제단체	19.05.01~ 20.04.30
위원	서한나	잡지 Boshu 편집장	청년 고리	문화단체	19.05.01~ 20.04.30
위원	이규홍	안정성평가연구원 본부장	한국독성학회	과학기술단체	19.05.01~ 20.04.30
위원	임정규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대전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	19.05.01~ 20.0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1. 교양 : 지역의 소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송에 있어서, TV보다 핸드폰,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청하는 세대가 늘고 있어, IT기술이나 신기술에 보다 정밀하고 신속한 접근이 필요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방송 소재는 지역의 이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떨어진 중앙의 이야기보다 우리의 이야기를 보다 많이 다루었으면 합니다. **(김병구 위원)**	**회사차원에서 모바일 서비스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유투브를 중심으로 한 뉴미디어를 통한 콘텐츠 소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방송으로서 지역의 이슈에 천착해야한다는 것은 당위일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지역의 소재를 발굴하고 지역민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양	**2. 교양 : 1회용품 사용 억제** 1회용품 관련해서 방송중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송에서 1회용품의 모습을 최대한 줄이고, 재사용 물품을 화면에 자주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양홍모 위원)**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스튜디오 프로그램 녹화 시에도 머그컵 등을 소품으로 활용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교양	**3. 교양 : 퍼블릭 억세스 프로그램** 퍼블릭 엑세스 프로그램 제작 이야기는 무척 관심이 갑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으려면, 전문적인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MB의 경우 먼저 도입했는데, 취지는 좋았으나, 호응이 없어 무척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시청자의 호응을 얻을 다양한 방법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양홍모 위원)**	**우선 현재 상황에서 일반 시청자들에게까지 외연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역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이후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최대한 다양한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4. 교양 : 이제는 시민이 주인이다** 요즘은 다시보기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데, <이제는 시민이 주인이다> 다시보기에 들어가면 방송일과 제목만 나와 있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양홍모 위원)** <이제는 시민이 주인이다>는 소소한 이야기를 잘 찾아내서 항상 즐겁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권부남 부위원장)** 어은동 축제를 다룬 방송분에서 화면도 생동감 있고, 인터뷰도 알찼습니다. 내동의 부엌은 내용은 좋았지만, 운영주체의 인터뷰만 있고, 실제 주역주민의 인터뷰가 빠져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양선희 위원)**	**<이제는 시민이 주인이다>의 홈페이지 다시 보기 문제는 지적 이후 수정해 해당 회차의 방송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일단 올 해 방송은 종료하지만 이후에 더 좋은 기획으로 대전뿐만 아니라 충남과 세종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양	**5. 교양 : 크리에이터 성장기 - 독전** 마술하는 콜라비를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화면, 음향 등 전체적으로 생기 있는 느낌으로 구성되어 알찬 프로그램으로 생각되었고, 전영미, 박찬규의 콜라보레이션도 좋았습니다. **(서한나 위원)**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지역에서 제작하던 방식이 아니라 좀더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는 취지였는데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전>의 경우 시즌제 도입 후 첫 사례이며 향후 평가를 통해 새로운 시즌을 시작할지, 아니면 또 다른 도전을 할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양	**6. 교양 : 다큐에세이 그 사람** 지역MBC 공동제작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수주에 걸쳐, 재키정, 해녀의 노래 등 가수와 노래가 중복되어 소재로 등장하고 있어, 다양성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획단계에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상에서 동영상위에 제목이 드러나도록 일관성이 있게 정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양선희 위원)**	**공동 제작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아이템 조율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 타계열사와의 제작 회의 등을 통해 아이템 선정과 조율 과정에서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7. 교양 :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아침이 좋다> 6/4 국립현충원 방송분은 시기에 맞추어 무겁지 않게 제작해서, 재미있게 시청했습니다. 둘레길 소개가 특색 있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권부남 부위원장)**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지역에 천착하고 지역민의 관심과 이해에 복무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양	**8. 교양 : 건강플러스** 6/1 건강플러스 : 허리통증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많아 좋았는데, 시술이나, 치료에 집중하고 평소 관리에 필요한 부분이 적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대부분의 시청자의 경우 생활에서 실천하는 생활습관, 자세, 예방법 등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TV주치의 직전 건강밥상은 소재와 내용은 좋았으나, 전체적인 연관성이 조금 부족한 듯 느껴집니다. 요통에 좋은 요리나 두통에 좋은 요리 등 연관을 가지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듯합니다. **(김선재 위원장)**	**전체 제작 인력 배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있는 프로그램이라 더 많은 인력과 제작 여건을 투입하지 못해 빚어지는 문제로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부분이 제작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9. 보도 : 노정렬의 시시각각** <시시각각> 관련해서는 정치 관련 코너의 출연진 반복이 계속되는데, 정가 뉴스라 하더라도, 보좌관이나 관련 교수를 출연시키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치 지형상 거대정당의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거대정당 외에도 소수 정당도 출연이 보다 많았으면 싶습니다. 이러한 점도 다양성의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홍모 위원)** 자녀 체벌 어떻게 볼 것인가 ?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시청했습니다.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대립하는 연사가 서로 의견을 주장하는 모습이 흥미로 왔습니다. 시시각각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소상히 소개해서 좋았는데, 정가 이슈 코너 관련해서는 정치인의 막말만 소개해서 조금 편향된 시각이 있지 않았나 싶은 우려가 들었습니다. 화제가 되는 정가 뉴스라도, 균형을 잡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권부남 부위원장)** 시시각각 : 정치 코너 두 의원이 여러 차례 등장, 같은 뉴스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생동감 있고 좋았습니다. 여러 차례 출연한 출연자의 경우, 방송에 적합한 출연자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출연자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기존의 출연자의 방송 능력을 향상시키는 점고 고려해야할 요소입니다. **(양선희 위원)** 지역정치인의 발굴에 보다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서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녀체벌금지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의 대립은 좋았지만, 찬성과 반대의 패널중에 시대의 흐름과 너무 동떨어진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있어, 보다 신중한 패널 섭외가 아쉬웠습니다. 진행자인 노정렬씨의 경우, 중간중간 재치있는 발언은 인상적이지만, 간혹 출연자의 말을 끊는 부분은 지양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서한나 위원)**	**좀 더 다양한 패널들을 갖출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패널의 전문성과 토론 적합성 등을 고려하고, 진행에 있어서는 진행자가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성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 용	참 고	반 론
보도	10. 뉴스데스크 6/14 : <현대제철> 기사 <뉴스데스크> 6/14의 현대제철 문제는 사건을 너무 대립적인 각도로 다룬 것이 아닌가 ?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의 현안문제에서 시민단체보다 일반 시민의 의견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권부남 부위원장)	해당 기사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로의 안전밸브인 '브리더'를 임의로 열어 충남도로부터 제2 고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태가 경제계와 시민·환경단체 간 대립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철강협회의 정비 시 안전밸브 개방은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문에 이어 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당진상공회의소 등 대전·충청지역 10개 경제단체들도 지역경제 악영향을 이유로 양승조 충남지사에게 행정처분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반면, 당진시민대책위 등 시민·환경단체들은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식의 여론몰이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및 충남도의 각종 처분과 고로 조업정지 조치,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한 재계의 우려 그리고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은 당진지역은 물론 충남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산업·환경 뉴스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특정한 이슈에 있어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목소리를 기울이는 것도 언론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전MBC 뉴스는 앞으로도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며 객관적인 정보를 시청자들께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 용	참 고	반 론
보도	**11. 보도 : 지역의 시각으로 제작하는 뉴스** 6/3 뉴스중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 50%넘었다.>는 바람직한 보도라는 생각입니다. 사고 사례를 보여주며 심각성을 보여줘서 좋았는데, 자세하고 정확한 데이터와 원인분석과 충남도의 대안까지. 좋은 보도였고, 단편적인 보도가 아닌 이러한 대안까지 제시하는 바람직한 보도가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6/11 <이희호 여사 별세> 관련 뉴스도 지역뉴스의 좋은 본보기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의 뉴스를 지역에서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좋은 본보기였습니다. <U20관련 뉴스> 역시, 글로벌한 소재를 지역의 뉴스로, 지역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기사여서, 보기 좋았습니다. **(양선희 위원)**	**<노인 교통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16.3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 해당 보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지역 내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이 40% 수준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는 통계와 함께 유관기관들의 맞춤형 사고 감소 대책을 시청자들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대책의 실효성과 성과를 적극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호 여사>(소셜 미디어 영상 포함) 해당 보도는 97세를 일기로 별세한 故 이희호 여사가 여성운동가로서 대전·충남과도 각별한 인연이 있었다는 점을 환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역에 분향소를 설치했다는 정치권 동향을 전하는 것에서 벗어나 일부 시청자들께서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 이 여사의 의미 있는 행적들을 대전MBC 뉴스 아카이브에서 발굴, 2002년 태안 안면도국제꽃박람회 명예 대회장 활동 등 다양한 영상을 소개해 안팎에서 의미 있는 시도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U-20 월드컵 축구대회>와 <1987년 6월 항쟁과 대전··거리로 나선 시민들> 뉴스(소셜 미디어 영상 포함)도 지역의 관점에서 현상을 짚어보고자 했습니다. 지역의 대표 공영방송으로서 지역성을 적극 구현할 수 있는 뉴스를 제작하도록 노력을 항상 아끼지 않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12. 보도 : 미담 사례** 6/14 기부에 대한 뉴스는 기부의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뉴스입니다. 이런 훈훈한 뉴스가 더 많았으면 합니다. 대학에서 경비원의 훈훈한 기부 사례 소개하니, 발굴기사로 시청자에게 소개해도 좋을 듯 합니다. **(김선재 위원장)**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뉴스를 통해 다양한 나눔 사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